

본문: 요한복음 8 장 12-20 절

제목: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Live as Children of Light)

1.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의 속 뜻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 님의 일곱 가지 일인칭(first person) 자기계시 선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다."라는 말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일곱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런 말들이 모두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말씀하신 일인칭 자기계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헬라어와 라틴어에 나타나는 독특한 문법이 자기계시에서 사용됩니다. 헬라어나 라틴어는 굳이 주어를 나타내는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동사 뒤에 suffix 를 통해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동사만으로 주어를 표시할 수 있기에 주어를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칭대명사가 굳이 나오는 경우는 그 동작의 행동을 하는 주체를 강조할 때입니다. 영어의 be 동사와 같은 동사가 헬라어에선 'eimi' 입니다. Eimi 만 써도 '나는 ~이다.'라는 뜻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Ego eimi"라고 하면서 '나'라는 뜻의 인칭대명사인 Ego 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에서 ego 라는 인칭 대명사를 쓴 이유는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나야 말로 세상의 빛이라구." 이런 뉘앙스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나 말고 자기들이 빛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빛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라는 대조를 나타내는 의도가 숨겨 있을 수 있겠죠. 유사한 빛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ἐγὼ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ego eimi to pos tou kosmou)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갖는 또 다른 숨은 뜻을 구약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스킵해버리면서 새로운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계시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42 장 1-6 절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 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6 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표현된 출애굽기 19 장 5-6 절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저버리죠. 중간 매개자가 실패하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아예 막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내가 바로 예언자가 말한 그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 짝퉁 영생

빛의 사명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빛과 어둠이 양분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참 생명의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3 장 16 절).”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유사한 것들을 찾는 것이죠. ‘유사 영생’ 또는 ‘짝퉁 영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은 어둠으로 질주하지만 겉은 매우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생의 모조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 대 때에는 격렬한 연애와 육체적인 사랑이 영생의 모조품입니다. 30 대에는 연봉이 높고 사회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갖는 것이 영생의 모조품이 됩니다. 40-50 대 때는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 영생의 맛을 느끼고 싶어하고, 집 평수, 집이 위치한 동네를 통해 영생을 얻은 것처럼 보이려고 발버둥 칩니다. 60 대 이후에는 안정된 노후 플랜과 건강이 영생의 모조품 역할을 감당하죠. 이런 것들은 말그대로 모조품일 뿐입니다. 영생의 짝퉁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짝퉁 좋아하는 거 아니까 유럽의 여행지에 가면 “이것 중국산 아닙니다.”라는 싸인을 한글로 써걸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짝퉁 영생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짝퉁입니다. 참 영생은 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짝퉁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모세 오경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의 규범과 조항들을 만들어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정도가 됐을 때 메시아가 올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너희는 짝퉁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님이면서 장님을 잘못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 소경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빛을 가장한 어둠이었던 겁니다.

3. 어둠의 스펙트럼

본문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죠. 12 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영생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 영생과 참 빛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법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해 있구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세리나 창녀 그리고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잘 와 닿습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참 빛이고, 예수가 짝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이상한 말만 해대는 짝퉁 메시아에 불과합니다.

본문에서 간음한 여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빛에 스펙트럼이 있듯이 어둠에도 스펙트럼이 있다는 겁니다.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가장 비참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빛에 대한 열망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빛을 가장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기만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빛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둠인 사람들이죠. 기만적인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기만적인 어둠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의 특징은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먹이삼아 종교적 위계질서를 만들고 흥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빛이기 때문에 여인은 어둠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빛이기에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그 여인은 어둠이기에 그렇게 대우받을 만 하고, 자기들은 빛이기에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해도 상관 없다 생각하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기독교회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불교도, 이슬람교도 들은 모두 어둠이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규범들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빛이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술 담배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십일조도 하고 각종 헌금도 하니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려 치라”는 말씀은 모두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우월감, 이것이 빛을 가장한 어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들의 종교에는 무엇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음식법, 주일을 지킨다 안지킨다는 안식일법, 할례를 했으니 안했느니 세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는 자격 요건 등을 매우 중요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안 맞는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 있다고 속단하지요.

4. 빛을 따라가는 삶

빛을 기만한 어둠, 짝퉁 영생 말고 진짜 빛에 대해 얘기 해봅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매우 심플합니다. 빛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걷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 문장에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진행형이죠. “한 때 나도 예수님을 따랐었지.” 과거형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언젠가 따를 거야.”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매일 끊임 없이 따르는 겁니다. 빛을 따르는 것을 멈추는 순간, 어둠에 포획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 온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것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믿는 행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예수 따름을 놓쳐 버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열쇠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믿음 이후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따름에 무게를 더 두시는 듯 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믿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러니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구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마 16:24)." 빛을 따르는 삶은 점이 아니라 선인 것이지요.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 없이 이어져야 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5. 빛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의미

빛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의 속뜻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행실과 어둠의 행실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선과 의와 진실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 속에서 열매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하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하는 마음으로 빠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포용하고 환대하는 예수의 인격이 그의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빛을 따라가는 삶의 두 번째 의미는 빛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일삼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자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동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가면 삶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빛의 동아리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야 빛을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빛을 따라가는 삶의 세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폭로하고 몰아내는 선교적인 삶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교란 보냄을 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적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동아리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세번째 의미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빛의 동아리를 통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사명을 받았습시다. 선교적인 삶이란 빛으로 어둠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이라는 빛의 모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빛의 공동체인 교회는 빛의 모델로서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참 빛을 발견할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6. 이웃을 빛나게 하는 삶

바리새인들의 삶이 빛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 빛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를 빛나게 하려 했고, 상대를 환하게 하고, 상대의 삶을 꽃피우려 하셨기에 본인도 빛이 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빛나려고 했지만 그것은 어둠의 원리입니다. 어둠은 다른 이들의 어둠을 이용해 자기가 돋보이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나 때문에 빛나도록 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빛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자연스레 빛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빛의 열매인 사랑으로 다가가니, 상대방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 1 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빛의 자녀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빛의 자녀의 특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빛의 열매인 사랑이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